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2월 4일
제1925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8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 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니” (루카 1,46-47)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1-2)



〈세례자 요한의 설교〉,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대림 제2주일 (가해)

제 1 독 서 이사 11,1-10 | 그는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라.

화 답 송 시편 72(71) |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제 2 독 서 로마 15,4-9 |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 음 마태 3,1-12 |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1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4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이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클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복음 묵상

마태오 복음 1-2장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3장의 시작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 주제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파견된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공적으로 처음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야기 순서는 그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을 묘사할 때 같은 그리스 말 동사 ‘파라기노마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3장 1절에서는 ‘나타나다’로, 3장 13절에서는 ‘찾아가다’라는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의 신원은 같은 복음 선포 문구의 사용으로 추가로 증명됩니다. 곧 3장 2절에서 사용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4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설교의 중심에는 하늘 나라가 있었고, 그는 하늘 나라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회개를 제시하였습니다. 3장 5-6절과 7-8절에 묘사된 두 개의 예시는 세례자 요한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예시를, 두 번째는 부정적 예시를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입니다(교황청 경신성사성, 『강론 지침』[Homiletic Directory], 2014. 6.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1판[2015], 90항 참조). 세례자 요한은 ‘부름받은 백성’ 또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 곧 죄의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실천입니다. <정진만 안젤로 신부>

대림 묵상

“대림시기 동안 우리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잠에서 깨어나도록 합시다!”

- 프란치스코 교황 -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당신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고 모실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을 간략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물음은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정에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한낱 이론으로만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명심합시다. 곧,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삶 속에 숨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상황 속에 숨어 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 오시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통해 오시며, 일상적인 일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일상의 일터에서, 우연한 만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얼굴에서, 우리가 칙칙하고 단조로워 보이는 날들을 마주할 때에도, 그 순간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 행동에 영감을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알아 뵈고 모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의 방문에 대비하지 않는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대림시기 동안 우리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잠에서 깨어나도록 합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가? 나는 일상적인 상황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 오늘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길 기다리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 12월 8일(목)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The Immaculate Conception, 1665-1670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성모 마리아께서 잉태되신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믿음은 초대 교회 때 생겨났다. 여러 차례의 성모님 발현으로 이러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1854년 비오 9세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를 ‘**믿을 교리**’ 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1838년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 조선교구의 수호자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로 정해 줄 것을 청하였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 이러한 요청을 허락하였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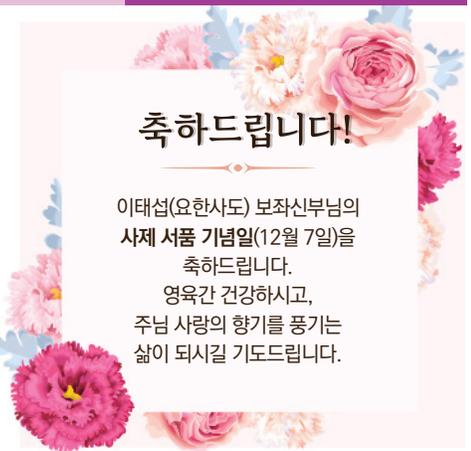
·일시 : 12월 8일(목) 오후 7:30



그대에게
이루어질
두

- 1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2월 4일(일) 오전 11:30 (B-1,2)
- 2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 12월 4일(일) 오후 6시 (친교실)
-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 3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 12월 8일(목) 오후 7:30
(새벽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4 동전 모으기 저금통 배부 (복지부 주관)**
- 불우 이웃 돕기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배부합니다.
- 대림 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 공현 대축일(1월 8일)**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유아 세례**
- 일시 : 12월 10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 전신자 대림 특강 (교육부 주관)**
- 일시 : 12월 11일(일) 오후 1시-오후 3시 (친교실)
- 주제 : “새로운 계약의 케인 성모님과 예수님의 강생”
- 감사 : 임성근 판탈레온 신부님
(부산 교구 / 미 가톨릭 대학 영성신학 박사과정)
- 7 단체장 회의**
- 일시 : 12월 11일(일) 오전 11:30 (B-1,2)
- 8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2월 11일(일) 오후 1시 (B-3,4)
- 9 M.E 연말 파티 모임**
- 일시 : 12월 11일(일) 오후 4시
- 장소 : 13579 Dianthus Court, Centreville, VA 20120
- 참가할 수 있는 ME 부부는 RSVP 바랍니다.
- 문의 : 김진호 다니엘 (703) 300-5420
- 10 2차 헌금**
- 다음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자선(Catholic Christmas Collect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1 첫 영성체반 등록**
- 2023년도 첫 영성체반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 10시 미사 후 30분 / 2시 미사 전 30분 (하상관 로비)
- 문의 : 윤정 보일 (703) 371-3589
- 12 2023년 매일미사 책 및 병초(Box) 주문**
- 성물부에서 2023년도 매일미사 책과 제대초 봉헌을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물부에 문의해 주세요.

- 13 성탄 판공성사 안내**
- 본당 판공성사 : 12월 13일(화) 오후 3시, 오후 7시
- 저녁 미사는 판공성사 관계로 7시에 봉헌합니다.
- 판공성사를 위해 손님 신부님들이 오십니다.
- ※ 성사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 14 2022년 송년 대잔치 (구역부 주관)**
- 일시 : 12월 30일(금) 오후 7시 (친교실)
- 미사는 오후 6시에 있습니다. • 대상 : 전 신자
- 내용 : 개인 노래자랑, 장기자랑, 디너파티
- 문의 : 지경수 요한 (571) 331-6047
- 15 2022년 주일학교 성탄 공연**
- 본당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성탄 축제 공연에 전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 공연 : 우리들의 작은 성탄 이야기
(Just a Little Christmas)
- 일시 : 12월 18일(일) 오후 3시 - 4:30
- 장소 : 본당
- 16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문의 : 제대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주일 헌금	\$ 6,609.00
교무금	\$ 8,030.00
교무금(신용카드)	\$ 790.00
감사 헌금	\$ 160.00
온라인 봉헌	\$ 3,750.00
합계	\$ 19,33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탄 미사 안내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일시 : 12월 24일(토) 오후 8시(구유예절로 시작)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일시 : 12월 25일(일) 오전 8시, 10시, 오후 5시
- 학생미사 : 오전 10시 (친교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 1월 1일(일) 오전 8시, 10시, 오후 5시
- 학생미사 : 오후 2시

산타가 되어 주세요!

대림 시기를 보내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GivingTree가 본당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하상 까리파스가 마련한 사랑의 GivingTree에는 강원도 지역, 네팔,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지역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카드가 달려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아동 1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12월 8일(목) 오후 5:00 - 6:00
- 12월 9일(금) 저녁 8:00 - 9:00
- 12월 11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성지 매혹의 땅을 가다: 예수 탄생 기념 성당
3. 한국 교회사: “죽음이 어찌 두려웠소.”
복자 원시보 야고보

교황님의 12월 기도 지향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

인간 발전에 헌신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이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